

# 4월 IT수출 4.6% 증가한 88억 8000만 달러

휴대폰 수출 14.1% 증가해 회복세...반도체 · 패널 가격 하락세 둔화 예상

●○○● 4월 IT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6% 증가한 88.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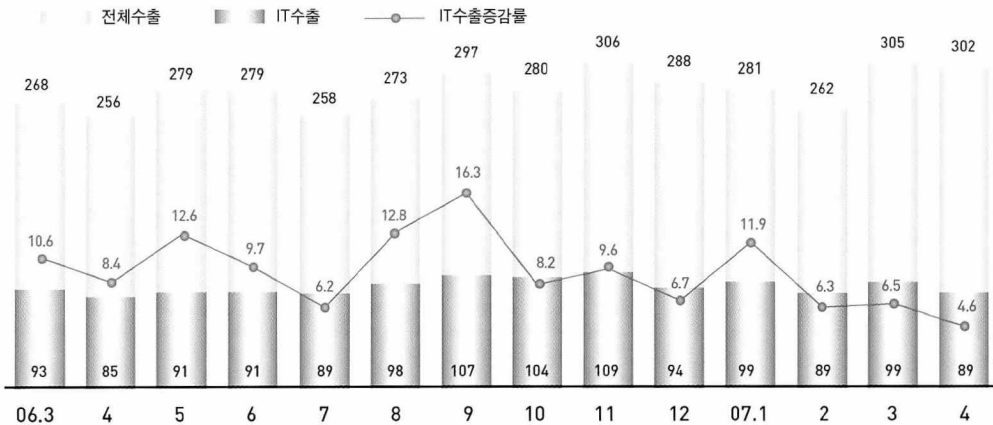
정보통신부는 4월 IT수출이 계절적 비수기,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쟁심화에 따른 IT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됐지만, 그간 부진했던 휴대폰 수출이 14.1%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해 IT수출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 IT수입은 전년 같은 달 보다 15.5% 증가한 54억5000만 달러에 달해 IT수지는 34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전체산업 수지흑자인 8억 달러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단위 : 억 달러, % : 지난해 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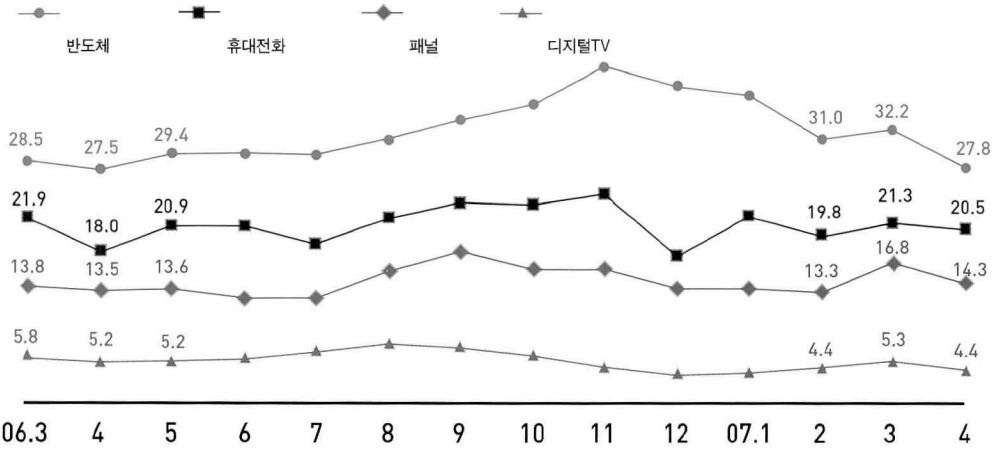
구 분	IT 산업		전체산업	
	'07. 4	'07. 1~4	'07. 4	'07. 1~4
수 출	88.8	376.0	301.5	1,149.7
증감률(%)	4.6	7.3	17.8	15.6
수 입	54.5	206.5	293.5	1,113.8
증감률(%)	15.5	8.8	19.9	14.8
수 지	34.3	169.5	8.0	35.9

● 최근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품목별로는 휴대폰(부분품 포함)이 IT수출을 주도하는 가운데, 반도체와 패널 수출이 다소 주춤했다.

● 주요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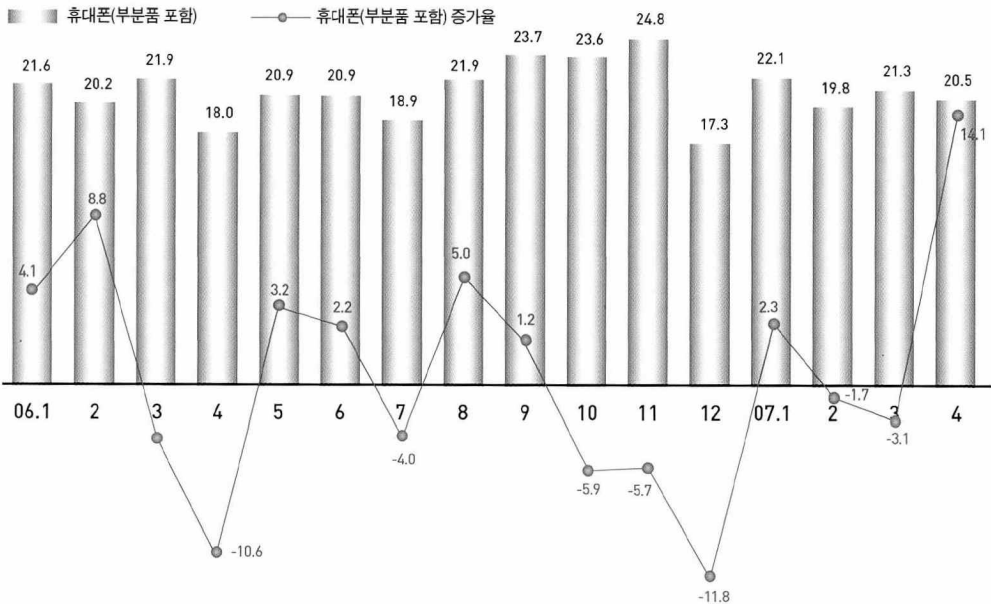


● 2007. 4월 주요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억 달러>

구분	휴대폰(부분품 포함)	반도체	패널	전체
전체(전년대비%)	20.5(14.1)	27.8(1.1)	14.3(5.8)	88.8(4.6)
비중(%)	23.1	31.3	16.1	100

휴대폰(부분품 포함) 수출은 14.1% 증가한 20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05년 이후 글로벌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신흥시장 진출 미흡,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증가율이 둔화돼오다, 2005년 9월 이후 19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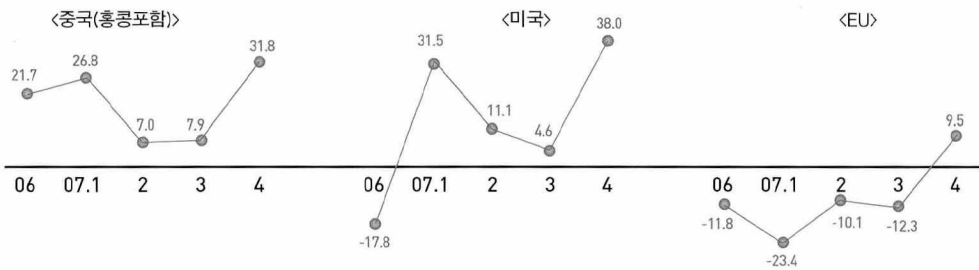
● 최근 휴대폰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



지역별 휴대폰 수출은 중국(홍콩 포함, 31.8%)이 5억5000만 달러로 부분품 수출 증가를 주도했고(37.8% 증가, 전체 부분품의 69.8%), 미국(38.0%) 3억6000만 달러, EU(9.5%) 5억4000만 달러 등 선진시장에서는 3G 교체수요와 맞물려 프리미엄 제품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특히, EU는 2006년 8월 이후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됐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793%) 4000만 달러, 중동(121%) 6000만 달러, 아프리카(41.9%) 4000만 달러 등 신흥시장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 반지역별 휴대폰 수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



한편, 반도체는 D램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메모리반도체의 수출이 12억3000만 달러로 2.6% 증가하는 데 그치는 부진을 보임에 따라, 전체적으로 1.1% 증가한 27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머물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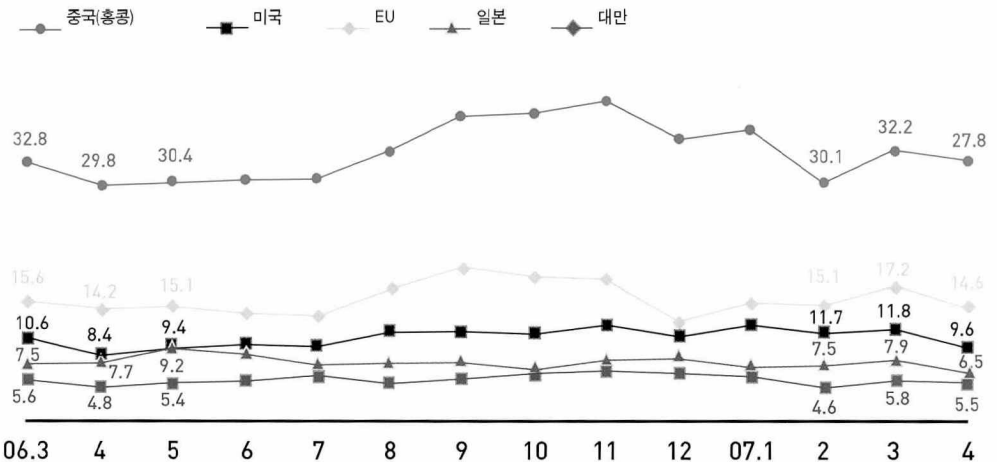
●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 억 달러, % : 전년대비>

구분	06.3	4	5	6	7	8	9	10	11	12	07.1	2	3	4
반도체 (%)	28.5 (8.5)	27.5 (9.8)	29.4 (14.0)	29.3 (10.8)	29.2 (6.4)	31.1 (13.3)	33.4 (21.9)	35.1 (24.3)	39.4 (32.4)	37.3 (34.0)	36.1 (31.2)	31.0 (20.2)	32.2 (13.1)	27.8 (1.1)
Logics	11.5 (18.0)	11.2 (15.4)	11.1 (7.7)	10.8 (1.7)	11.1 (Δ3.9)	11.4 (9.1)	11.8 (20.4)	12.2 (19.0)	14.6 (39.3)	13.0 (27.6)	11.2 (12.2)	9.5 (Δ4.7)	11.2 (Δ2.7)	9.6 (Δ13.9)
메모리 (%)	12.4 (Δ10.4)	11.9 (Δ6.3)	13.4 (3.3)	12.9 (Δ0.9)	13.2 (0.4)	14.7 (3.8)	16.0 (10.9)	16.5 (15.7)	17.9 (36.3)	18.7 (55.6)	19.8 (60.0)	16.1 (43.4)	14.5 (17.5)	12.3 (2.6)
D램 (%)	5.9 (Δ24.0)	6.0 (Δ10.9)	6.9 (8.2)	7.2 (10.2)	7.3 (10.3)	8.2 (18.7)	9.8 (39.0)	10.8 (60.4)	12.2 (83.1)	13.9 (148.5)	16.7 (208.3)	13.3 (159.8)	11.7 (98.7)	9.3 (53.3)
낸드 (%)	2.8 (Δ21.6)	2.4 (Δ32.7)	2.5 (Δ36.0)	2.3 (Δ39.3)	2.5 (Δ36.3)	2.6 (Δ39.4)	2.5 (Δ42.3)	2.4 (Δ46.2)	2.1 (Δ31.3)	1.7 (Δ43.3)	2.2 (Δ37.1)	1.8 (Δ36.6)	1.7 (Δ39.7)	1.7 (Δ28.9)

패널 수출은 하반기 특수를 겨냥한 세트 업체의 TV용 패널 주문 증가, 윈도 비스타와 맞물린 대형 모니터용 패널 특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 영향과 대일본 수출이 1억5000만 달러로 53.8%가 감소한 탓에 예년에 비해 둔화된 5.8% 증가한 14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IT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홍콩포함 32억7000만 달러)과 미국(9억6000만 달러)이 휴대폰과 패널 수출 호조로 각각 9.5%와 14.2%의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EU(14억6000만 달러, 3.2%)는 반도체( $\Delta 2.1\%$ ), 디지털TV 부분품( $\Delta 7.7\%$ ) 등 부품 수출이 감소해 증가율이 다소 둔화됐다. 한편, 일본은 패널 수출 부진(1억5000만 달러,  $\Delta 53.8\%$ )으로 16.3% 감소한 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주요 국가별 수출 추이(단위: 억달러)



정통부는 4월 IT수출이 휴대폰을 중심으로 중국,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 수출 호조세 시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을 겪고 있는 반도체와 패널의 수출 둔화로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통부는 향후 IT수출이 3G폰 등 교체수요 확대, 신흥시장에 대한 중저가 제품 출시 본격화 등으로 휴대폰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와 패널 등 IT부품의 수요 기반 확대와 가격 하락세 둔화 전망 등으로 회복을 기대했다.

다만, 정통부는 2분기 역시 비수기인 관계로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미국 경기 둔화와 중국의 경기과열에 따른 긴축정책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K